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역 주력산업 회복

군산시,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취업지원 추진 대승산업·덕산기업등 12곳 최대 500여명 지원

군산시와 전북도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와 협력사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개인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023년 1월 재가동을 위해 사내협력사 12개사를 선정해 2022년 300여명의 고용창출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9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사내협력사 총 12개사로 △(주)남원, △(주)대승산업, △(주)덕산기업, △(주)백산에이치디, △(주)부성산업, △(주)서해테크

△(주)선영테크, △(주)승민, △(주)신광이엔지, △STM에스티엔, △(주)유성ENG, △(주)현대포스이며 2022년 지원인원은 약 300명이다.

시는 18일 진행하는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매칭데이'를 통해 참여기업과 구직자를 매칭,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인재 유입과 신중년 고용 창출로 지역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시에서 진행하는 협력사 취업 지원사업은 신규취업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청년대상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사업과 신중년대상 '조선업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으로 나뉜다.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사업은 지역상황에 맞게 청년일자리 창출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업에는 인건비를 1인당 매월 최대 160만원씩 2년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교육, 네트워크, 자기개발비, 교통비·문화여가비 등이 지급된다. 또한, 2년 이상 근무한 3년차 청년에게는 사업 종료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지역정착금으로 인센티브를 분기별 250만원씩 최대 1,0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조선업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은 만40~69세의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에게는 1인당 매월 최대 7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하고 취업자에게는 취업 후 1년 경과시점부터 분기별 5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윤동욱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조선업 분야 일자리 미스매치가 해소되고 기업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여 전라북도 조선업 생태계가 복원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채형석 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장은 "협력사들이 신규 인력을 원활히 채용하여 조선소 정식 가동에 힘을 보태 군산시 주력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고, 군산지역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고용 위기지역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취업지원사업 관련, 청년은 전북산학융합원(☎472-2825), 신중년은 일자리정책과(☎454-436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산림분야 호우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부산림청, 산사태취약지·다중이용시설 긴급점검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산림분야 호우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서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 기관장을 중심으로 임도, 목재수확지 등 산림사업 현장과 유아숲체험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조

사를 실시하고 피해지 발견 시 산사태 현장예방단, 임도관리단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 신속한 응급조치와 사방 시설 등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례적인 폭우 등 기상이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中 쓰촨성 청두시 전북기업 온라인 상담회

전북도 중국사무소(소장 정순택)는 對중국 바이어 발굴 및 도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와 온라인 바이어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1:1 수출상담회는 도 기업지원과와 농식품산업과 경제통상진흥원 등의 협조를 받아 모집한 전주, 익산 정읍, 무주, 진안의 도내 식품기업 8개사와 쓰촨성 청두시 고신구 과학기술청신국 및 청두시 SKFI 한중미래혁신센터를 통해 모집한 쓰촨성의 중국 바이어 28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온라인 상담회는 도내 기업의 중국 중서부 진출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사무소는 청두시 고신구 과학기술청신국 그리고 청두시 SKFI 한중미래혁신센터(센터장 박원서)와 각각 상호 우호·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정보 및 업무교류, 상호 시장 진출 지원과 협력방안 모색 등 상호발전과 이익을 위해 3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정순택 중국사무소장은 "코로나19로 양국 간 이동제한에 따른 수출 상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해 도내 식품기업의 중국 중서부 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양 지방정부 간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중국사무소는 對중국 바이어 발굴 및 도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와 온라인 바이어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 7월 수출 6억9300만 달러

전주세관 '수출입 동향' ... 전년동월대비 0.3% ↓

올해 7월 전북지역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주세관이 발표한 2022년 7월 전북 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도내 수출은 전년(6만9500만 달러) 동월 대비 0.3% 감소한 총 6억 93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또 무역수지의 경우 총 4900만 달러

로 전년 동월보다 7%나 감소했다. 반면에 수입은 6억4400만 달러로 전년(5억2600만 달러) 동월 대비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28.0%)·기계류(14.7%)·식료품(11.3%)·철강제품(3.2%)은 증가했으며, 화학품(12.7%)은 감소했다.

이어 수입은 곡물(40.2%)·경공업원료(33.0%)·전자기기(24.7%)·화공품(7.1%)은 증가 기계류(4.0%)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수출은 중남미(38.7%)·미국(29.3%)·동남아(6.3%)에서 증가세를, 중국(25.2%)·EU(6.0%)는 감소세를 보였다. 또 수입은 동남아(77.2%)·미국(43.6%)·중남미(26.5%)·중국(18.1%)이 증가한 반면 일본(10.7%)은 감소한 것으로 전주세관 측은 분석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농산물 추출 기능성원료 생산·공급 허브 구축

농식품부·식품진흥원, 익산에 기능성원료은행 착공

고령화와 감염병 유행 등으로 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농산물에서 유래한 기능성원료를 생산해 보급하는 시설이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7일 전북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기능성식품 원료의 생산·보관·공급을 위한 '기능성원료은행'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기능성원료은행은 국내 농산물에서 유래한 기능성원료를 생산하고 보관·분양하기 위한 기반을 갖춘 시설이다.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연 면적 1872.49㎡,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4년 2월 준공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에 대한 관심과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날로 성장하고 있다. 2020년 12월 일반식품의 기능성표

시제도 시행 이후 올해 4월까지 67개사에서 298건의 기능성표시식품을 등록하는 등 관심이 큰 상황이다.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해외 수입원료가 444건으로 국내 원료(203건)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국내 농산물에서 유래한 기능성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능성원료은행을 구축하게 됐다.

김상경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기능성원료은행을 통해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원료의 생산과 보급이 원활해지면 식품 산업 성장뿐 아니라 농산물 고부가가치화로 농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